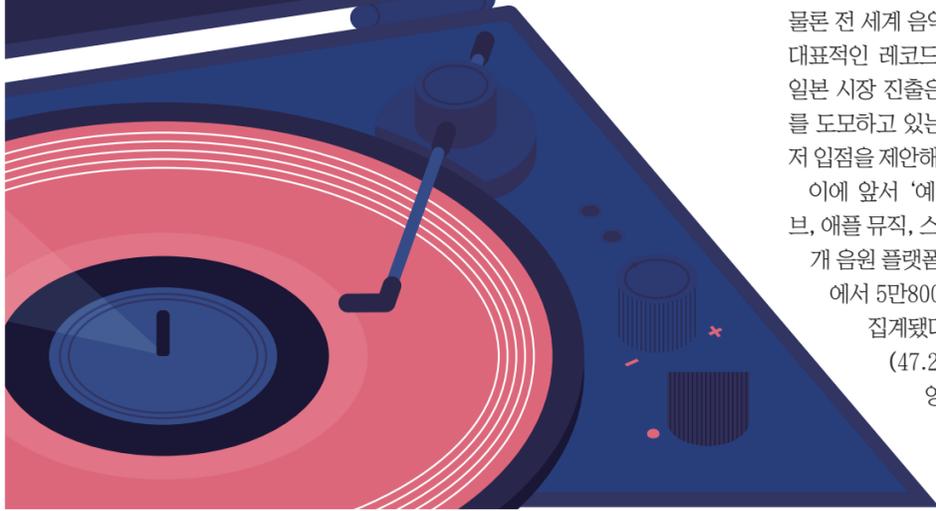


ACC재단 제작 앨범 '예언' 전 세계에서 화제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

LP음반 첫 해외 수출 '깨기'
1970년대 음악 현재 소리로
일 최대 음반유통사 입점
50개국·5만8000여회 이상



1970년대 국내 재즈계가 발산했던 한국적 사운드를 담은 앨범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에 따르면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월 발매된 앨범 '예언(12인치 LP/바이닐)'이 첫 해외 수출 성과를 거뒀다.

앨범 '예언'은 최근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반 유통사인 디스크 유니온에 입점했다. 일본 전역에 58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디스크 유니온은 장르별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인은 물론 전 세계 음악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레코드점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본 시장 진출은 아시아 음악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디스크 유니온측이 먼저 입점을 제안해 이뤄졌다.

이에 앞서 '예언'은 멜론, 벅스, 유튜브,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국내·외 16개 음원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50개국에서 5만8000회 이상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음원 점유율은 △미국(47.2%) △일본(12.7%) △영국(10.9%) △독일(4.4%) △프랑스(2.3%) 순으로 나타났다.



ACC 재단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 앨범 '예언' 바이닐 이미지. ACC재단 제공

ACC재단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과거 음악을 동시대 음악가들이 현재의 소리로 재해석·재창조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첫 앨범 '예언'은 1960~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과 신민요 및 전통 장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을 담았다.

음반 제작에는 DJ소울스케이프가 이끄는 경음악단 'STUDIO 360'이 참여해 밀양아리랑, 새타령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민요 멜로디를 각기 다른 리듬의 질감으로 해석했다. 또 '바람' 등 오리지널 트랙에서는 1970년대 한국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멜랑콜리한 감성을 그려냈다.

'예언'은 ACC 문화상품점 '들락 DLAC'을 비롯해 김밥레코즈, 웰컴레코즈, 사운드스토토어 등 국내 주요 레코드

숍을 통해 전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4개월 만에 품절돼 최근 2쇄를 발매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 모든 장르의 음악이 밀려들어오던 세계화와 한국 음악의 전통적 가치가 강조되던 지역화의 충돌 속에서 높은 에너지로 음악적 결합과 실험을 이뤄낸 1970년대 한국 재즈의 저력을 되새긴 의리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대중음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60~1970년대, 한국 재즈는 국내 전통의 멜로디, 리듬을 바탕으로 한 정서와 표현방식을 재즈와 소울, 포크 등의 장르와 결합했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지역 음악으로서 한국 재즈의 특징을 강화했다. 당시 한국 재즈가 보여준 음악적 접근은 오늘날에도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확장과 미래지향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앨범 제목이 '예언'인 것도 예언과 같았던 과거 한국 재즈의 시도를 깊이 이해하고 즐겁게 풀어내고자 작명한 것이다.

김선욱 ACC재단 사장은 "'예언'이 한국 음악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념비적인 앨범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앨범과 상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조유나 작 'Happy day'.

연말 맞아 광주 동구 일원서 청년작가 전시 '성황'

광주미술상 조유나 개인전 특별상 백상욱·윤성민 2인전

올해 광주미술상 수상작가와 특별상 수상자들의 전시가 광주 동구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사단법인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위원회)는 2024 광주미술상 수상 올해의 청년작가 조유나 개인전 'HAPPY DAY'를 오는 31일까지 광주 동구 충장22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일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들을 형상화한 입체작품 등 조유나의 작품 11점을 선보인다.

조유나는 유년기 시절 겪었던 심적 억압에 대한 트라우마와 현대인들의 내적 강박을, 작품을 통해 조형적으로 풀어냈다. 최근에는 광주의 정체성인 빛과 자아를 결합한 실리온 네온의 빛 조형 작품들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

전시 주제인 'HAPPY DAY'는 작품을 관람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자 한 메시지가 담겼다. 위원회는 2024 광주미술상 특별상을 받은 백상욱, 윤성민 작가가 참여한 2인전도 함께 개최



백상욱 작 '일상의 스케치'.

하고 있다. 백 작가와 윤 작가는 앞서 2024 광주미술상 수상작가인 조 작가와 더불어 공모 접수에서 서류 심사·포트폴리오 심사 3배수에 속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들에게 특별상을 전달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 전시를 추진했다.

'2024 광주미술상 수상 올해의 청년작가 특별상 2인전'은 광주 동구 예술공간 집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박찬기자

“새해에 아시아 문화다양성 체험하세요”

'ACC 아시아 예술체험'

내달 8일부터 강좌 12회
2월12일까지 문화교육실1
아시아 공예·정원문화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새해를 맞아 내년 1월8일부터 2월12일까지 문화정보원B2 문화교육실1에서 '2025년 ACC 아시아 예술체험'을 운영한다.

'아시아 예술체험'은 아시아의 전통 가치, 아시아인의 삶의 지혜 함양 등 아시아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후 2시 강좌와 직장인의 퇴근시간을 고려한 오후 7시 강좌가 총 12회 진행된다. ACC가 지난해부터 2년간 운영한 '아시아 예술체험' 중 교육만족도가 높았던 4개의 인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됐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아시아 공예'에서는 아시아 권역별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지난해 진행된 'ACC 아시아 예술체험'의 아시아 정원문화 프로그램 현장. ACC 제공

에 따라 발달한 다양한 형태의 공예를 살펴본다. 동아시아의 옷칠 공예 중 한국 나전칠기의 역사와 기법을 배우고 자신이 원하는 문양의 나전칠 공예품을 제작해 볼 수 있다.

'아시아 정원문화'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원문화예술과 지역의 계절성을 지

닌 꽃과 소재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정원으로 재해석하는 꽃꽂이 프로그램이다.

'아시아를 새기다'에서는 세계 4대 문명권에서 사용된 인장(印章)의 형태와 문자를 통해 아시아 인장이 발전된 흐름을 접하고, 인장의 구조와 용도를 알아본다. 또 자신의 이름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 인장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공예'는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초염색의 독특한 기하학적 무늬나 천의 명칭을 일컫는 '바틱' 체험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강좌다.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보다 입직 문화로 행복한 삶을 선물하고자 '아시아 예술체험' 교육을 예년보다 이른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삶의 온기를 나누며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원동력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찬기자

국립광주과학관, 인공지능 신규전시품 3종 선보

모션아트·로봇 강아지 등

국립광주과학관은 인공지능관에 설치된 신규전시품 3종에 대해 시범운영을 마치고 지난 17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품은 △인공지능과 내가 만드는 영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모션아트 △비전 알고리즘과 강화학습을 활용한 '로봇 강아지' 등 총 3종이다.

'인공지능과 내가 만드는 영화'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관람객의 모습을 영화 속

인물처럼 바꿔주는 체험형 전시물이다. 모나리자 얼굴에 관람객의 표정을 합성해 마치 작품 속 주인공이 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모션아트'는 비전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관람객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화면 속 예술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로봇 강아지'는 강화학습으로 다양한 동작을 학습한 로봇으로, 걷기, 뛰기, 쪼그리기, 점프하기, 애교부리기 등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인공지능과 내가 만드는 영화'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모션아트'는 인공지능관 2층 상설전시관에서 상시 체험이 가능하며, '로봇 강아지'는 인공지능관 1층 특별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콘텐츠를 기획한 김상우 국립광주과학관 전시기획실 연구원은 "신규 전시품 도입을 통해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쉽고 재밌게 이해하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자